

팔복예술공장 문화재생 '전국 우수'

전주시,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국토부장관상 수상 공공디자인 분야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례에 소개

전주시가 방치된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거점으로 탈바꿈시킨 팔복예술공장이 전국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선정됐다. 팔복예술공장은 지난 1970~80년대 전성기를 누리다 1990년대 경기불황과 금융위기로 쇠퇴해 25년간 방치되어 있던 팔복동 제1산업단지 폐공장 건물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문화재생사업이다.

시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지역개발 및 공공디자인 분야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우수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차별화된 발전 전략과 경쟁력, 개성 있는 정책으로 탁월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발굴·시상하는 최고 권위의 지방자치단체 정책경연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일

보가 공동 주최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산업단지 내 폐공장이 문화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면서 지난해 3월 개관 이래 이곳을 찾는 방문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시는 민선 6기부터 삼미촌 문화재생사업과 서학동예술촌 마을재생프로젝트, 팔복예술공장 조성 등 동네 전체를 무너뜨리고 새로 다시 짓던 기존의 재개발 방식과는 달리 다양한 사회·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민의 이색적인 문화로 부활시키는 다양한 문화재생사업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전주시의 문화재생사업을 배우려는 전국 지자

체의 문화재생연구를 위한 벤치마킹도 줄을 잇고 있다. 황원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팔복예술공장은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생 공간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주만의 고유한 색채와 강점을 살려 문화를 통해 도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는 청주시, 철원군, 원도군이 대통령상인 대상을 차지했으며, 전주시를 비롯한 30개 지자체가 각 분야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송효철 기자

"역사도심지구 상권 침체 우려"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시정질문... "일반업종 제한으로 팔달로 주변 등에 까지 상당수 빈 점포들이 임대 계약 못해 시, "장소성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업종 제한 등 규제에 따른 상권 침체 우려 및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전주시는 역사도심 지구 중 상업지역이 80.2%라는 구성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커피숍,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점 등 일반업종을 제한하고 건물 높이 층수 제한 등으로 갈수록 건물가는 오르지만 업종 규제 등으로 상권 개발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침체 현상이 지속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변경계획안을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경 변경 고시할 계획이며 지난번 층고 제한 및 과도한 업종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범주 안에서 역사문화자원과 미래유산 보전을 통해 현안 역사도시에 걸맞는 공간적 역사성과 본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하는 한옥, 건축물 용도, 높이 등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현재, 주차장 설치기준 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축연계선 이격, 무면적, 기존 건축물의 특례적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진행되고 있는 전라감영 복원 및 감영로 특성화사업, 전주객사 복원, 옛 골목 재현사업, 성문 및 성곽 복원 등의 추진을 통해한옥마을에만 국한되어 있는 방문객들을 역사도심 지구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지나친 건축물 층고 제한 및 과도한 업종 규제 문제와 관련, 지

전주음식 DNA 타임캡슐 보관

101개 업소 요리법 등 음식 자료 저장 봉입식

세계적인 맛의 도시인 전주시의 음식DNA가 타임캡슐에 담겨 50년 뒤 후손들에게 전수된다. 전주시는 2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음식 명인·명가·명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음식의 맛과 모습을 보존해 후손들에게 전승하기 위해 전주지역 101개 업소의 요리법 등 전주음식 자료를 타임캡슐을 저장하는 봉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2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음식 명인·명가·명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음식의 맛과 모습을 보존해 후손들에게 전승하기 위해 전주지역 101개 업소의 요리법 등 전주음식 자료를 타임캡슐을 저장하는 봉입식을 가졌다.

로 알려진 전주전통한지로 만든 지관에 담아 타임캡슐에 저장했으며 만들어진 캡슐은 오는 2068년까지 50년간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식자료실에 보관된다. 시는 세계적으로 음식의 맛과 독창성, 우수성을 인정 받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서 전주 음식의 맛을 보존·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전주음식 타임캡슐' 사업도 전주

음식 지키기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주음식 타임캡슐 봉입이 전주음식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제2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전주가 전통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모두의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음식의 독창성을 살려온 도시임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후대에게 남기

는 글을 타임캡슐에 봉입하면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전주의 음식문화가 50년 후 우리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전 세계에 전주음식과 전주의 가치를 드높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전주가 간직한 우수한 문화와 전주다움을 고스란히 지켜내고 더욱 발전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타임캡슐에 보관되는 자료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맛집인 전주음식 명인·명가·명소, 향토음식점, 전주음식창의업소 등 전주 고유의 업소들과 종부의 내림음식 등을 포함한 보존 가치가 있는 101개 소의 음식관련 자료들이다. 특히, 타임캡슐에는 식당이나 집안의 요리법(레시피) 외에도 의미 있는 자료나 비법, 후손에게 남기고 싶은 말 등 음식장인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기게 된다. 전주음식 자료는 천년을 가는 것으

전주시,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본격화

전주시가 주차장 공유로 시민편원을 해소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도심 내 주차 공간 확보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와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

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교통혼잡지역의 유휴 주차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한소했다. 관리주체에 대해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효철 기자

시민안전 스마트시티 조성 '맞손'

전주시가 대한민국 대표 소프트웨어기업인 한글과컴퓨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간정보를 구축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화재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 개발에 나선다.



전주시는 21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창학 LX사장,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전주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1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창학 LX사장,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전주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인 (주)산청에서 LX가 구축중인 신개념의 공간정보인 디지털트윈(Digital Twin, 물리적인 공간을 디지털로 동일하게 표현하는 가상 모델)에 기반한 소방안전서비스를 개발해 전주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한글과컴퓨터, LX는 각자가 보유한 지식과 기술, 정보제공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LX는 디지털트윈 솔루션 제공과 연계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산청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업단을 전주에 설치하고, 추후 R&D센터 구축과 관련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기업 참여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한컴의 자회사인 (주)산청은 소방분야 안전장비 제조 회사로,

전주시-LX-한글과컴퓨터 화재사고로부터 시민 보호 서비스 모델 개발 협약

이번 사업모델이 구축될 경우 고도의 통신기술과 여러 센서, 열화상 카메라, 가상현실 및 위치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이 기존 소방안전장비와 융·복합돼 화재관련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화재관련 데이터, 원격제어를 통한 체계적인 화재진압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LX, 한글과컴퓨터그룹은 실

질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소방관들의 화재현장 내 생생한 목소리 청취와 정보공유가 요구되는 만큼 소방관계부처의 협업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이날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면서 "전주 시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소방안전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굴지의 소프트웨어기업인 한글과컴퓨터, 국내 최고의 공간정보를 구축한 LX, 소방안전장비 제조회사인 산청과 함께 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 개발에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신규 발급 자가용 승용차 등록번호 앞자리 세자리로

오는 9월부터는 신규로 발급 되는 비사업용(자가용)승용차와 대사업용 렌터카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뀐다. 또한, 번호판도 기존 패턴 방식과 함께 반사필름 방식이 추가된 2종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은 새로운 번호판이 적용되며 기존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본인에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새 번호판이 도입되면 2억여 이상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차량 용도에 따라 119나 112 같은 특수번호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번호판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반사필름식 번호판도 함께 도입된다. 이 번호판은 입사한 광선을 광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재귀반사 필름방식으로, 번호판 왼쪽에 청색바탕에 태극 문양과 대한민국 영문 약칭인 'KOR',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전주시는 새로운 번호판 체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홍보와 함께 공공기관과 아파트, 상가, 주차장 등에 설치된 자동번호인식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장병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오는 7월까지의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 및 사전 테스트가 완료돼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중학생 제자 상습 성폭행' 전직 교사 징역 9년형

중학생 제자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기간제 교사 재직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을 A씨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으로 봐 법정형은 2년의 1까지 가중했다"며 "이 같이 판단한데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행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할 교사임에도 어린 학생을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양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재직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은 2분의 1가중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초·중등교육법은 교육 의무를 지는 학생 범위를 담임이나 수업 등 업무로 한정하지 않고, 청소년 성보호법 내용은 더해 보면 교사는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석훈 기자

비닐하우스 정비하던 50대 돌풍에 날아가 끝내 숨져

비닐하우스를 정비하던 50대가 갑작스런 돌풍에 날아가 숨졌다. 21일 전북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26분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한 마트 주차장에서 A모(51·여)씨가 비닐하우스를 정비하던 중 바다에 머리를 부딪혔다. 당시 아들과 함께 비닐하우스를 정비하던 A씨는 갑작스런 돌풍에 파이프와 함께 날아간 뒤, 추락하면서 바다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김석훈 기자

A씨는 B양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재직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은 2분의 1가중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초·중등교육법은 교육 의무를 지는 학생 범위를 담임이나 수업 등 업무로 한정하지 않고, 청소년 성보호법 내용은 더해 보면 교사는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석훈 기자